

# “디지털 금융 플랫폼 강화, 빅테크와 경쟁”

네이버·카카오 ‘빅테크’ 본격 대응  
신한 “우수한 디지털 기업에 투자”  
KB는 고객 중심 디지털 혁신 강조  
NH농협 “빅테크 등과 제휴 확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왼쪽부터) 등 5대 금융그룹 수장들이 2021년 경영 화두로 ‘디지털 플랫폼 강화’를 내세웠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은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강화’를 강조했다.

올해 미디어(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등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금융 서비스 확대가 예고된 만큼, 빅테크와의 경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해 경영 슬로건으로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를 내세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미래를 대비해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디지털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신한은 운명도 디지털 전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핀테크, 빅테크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디지털 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새해 경영전략 키워드로 ‘리뉴(R.E.W) 2021’을 제시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빅테크의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가 도래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고객 중심 디지털 혁신으로 넘버원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플랫폼 금융은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최적의 도구”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공급자로 전략하기 전에 자사 주도의 생활금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전사적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을 혁신하고, 디지털 넘버원 금융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취임한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선도 금융사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빅테크 및 핀테크와의 제휴도 확대해 오픈뱅킹, 미디어 등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엔씨-CJ ENM, 콘텐츠·플랫폼 합작법인 설립

IT와 엔터테인먼트 노하우 결합

엔씨소프트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엔씨는 CJ ENM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엔씨의 정보기술(IT)과 CJ ENM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엔씨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김정하 엔씨 엔터사업실장은 “양사가 보유한 역량이 다른 만큼, 시너지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선 CJ ENM 음악콘텐츠본부 음악사업부장은 “CJ ENM의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역량과 엔씨의 IT플랫폼 기반 사업 역량을 합쳐, 테크놀로지의 중요



엔씨소프트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 엔씨소프트는 CJ ENM과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게임 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

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트렌드를 리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는 최근 사업 영역을 게임 외 다른 분야로 넓히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KB증권, 디젤버앤컴퍼니자산운용과 ‘AI 간편투자 증권사’ 출범을 위한 합작법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박람회 국민 건강 지켜요” 홀플러스가 13일까지 ‘건강박람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고객의 면역력과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과 요가매트 등 홈트레이닝 용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홀플러스

## KT, NHN과 한게임에 ‘게임박스’ 론칭

KT는 NHN과 협력해 게임 포털 한게임에 ‘게임박스’를 론칭했다. 한게임 이용자들은 KT 게임박스가 제공하는 110여 종의 고사양 스트리밍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한게임 내 게임박스 입점을 시작으로

새 게임 사업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등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현진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전무)은 “파트너사와 게임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도모하며 게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 신한은행 ‘솔트브릿지’ 운영

신한은행이 쏘야구의 스토브릿지 버전인 ‘솔(SOL)토브릿지’를 운영한다. ‘2021 KBO 프리에이전트(FA)를 맞혀라!’는 FA 선수의 계약 구단, 기간, 금액을 맞춘 고객에게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기

간은 2021년 FA 최종 계약 체결 시점까지로 참여 고객 전원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2020시즌 KBO리그를 빛낸 ‘쏘야구 어워즈(AWARDS)’ 투표도 진행한다.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수상 선수 친필 싸인 굿즈를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donga.com

## 제주공항에서 중문까지 ‘쏘카’ 자율주행 셔틀 달린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대표 박재욱)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라이드플릭스(대표 박중희)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 서비스에 도전한다.

쏘카는 라이드플릭스와 올해 상반기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편도 38km 구간에서 미니밴(크라이슬러 피서피카)을 이용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 가운데 최장거리 구간이다. 중문단지과 공항을 오갈 때 최대 5인까지 탑승(캐리어 2개 포함)이 가능하다.

라이드플릭스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공항에서 쏘카스테이션 제주까지 왕복 5km 구간에서 승용차(현대차 아이오닉)로 5400회 이상 자율주행 셔틀 서비



쏘카와 라이드플릭스는 올해 상반기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미니밴을 이용한 유상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쏘카

스를 쏘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기술과 데이터, 운영노하우를 쌓아왔다.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한 승객 수요에

답형 자율주행 시범서비스였다. 8개월 동안 순수 자율주행시간만 500시간에 달하며 혼잡한 교통환경과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자율주행 셔틀 상반기 유상서비스 연내 제주전역·세종시 등 지역 확대

주·야간, 비, 안개 등의 상황에서도 사람의 통제 없이 다른 차량과 상호작용하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양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지역을 제주 전역을 포함한 다른 도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제주 전역 주요도로(왕복 400km)와 세종시 도심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수년 내 모빌리티 기업들이 유상 자율주행시장을 두고 본격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쏘카와 타사가 확보한 카셰어링과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역량, 라이드플릭스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결합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T&G, ‘릴 솔리드 2.0’ 전국 도시 판매 배터리 효율·디자인 개선...오늘부터 판매지역 확대



KT&G(사장 백복인)가 고품질 전지담배 ‘릴 솔리드 2.0(SOLID 2.0·사진)’의 판매지역을 6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한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릴 솔리드 2.0’은 ‘릴’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즘’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10월부터 서울, 세종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 지역 9개 도시로 판매처가 확대됐다.

6일부터는 전국에 미입점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ストップ, 씨스페이스) 2만3580개소가 추가돼 총 4만5674개소로 판매처가 늘어난다.

‘릴 솔리드 2.0’은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고품질 전지담배 2세대 모델이다. ‘릴 솔리드 2.0’에 새롭게 적용된 ‘서라운드 히팅 방식’은 인덕션 히팅 기술을 통한 일정한 가열로 끝까지 균일한 맛을 제공한다. 업그레이드된 배터리 효율로 한 번 완충 시 최대 30개비 사용이 가능하다. 권장 소비자가는 11만 원. 출시 기념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며, 릴 공식 홈페이지(www.its-ll.com)에서 할인쿠폰을 발급받으면 8만8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플러스’ 출시



LG전자는 5일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

항바이러스·항균 효과가 있는 트루 토탈케어 필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필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시험한 결과 쥐코로나바이러스(MuCoV)를 99.9% 제거한다. 쥐코로나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신제품은 또 0.0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한다. LG전자는 항균 필터가 적용된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펫 플러스’도 함께 선보였다. 신제품 출하는 99만9000~156만9000원이다. 김명근 기자

##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선보임



아모레퍼시픽 라네즈가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사진)를 출시했다. 라네즈 스테디셀러인 ‘워터 슬리핑 마스크’를 업그레이드했다. 외부 자극에 손상 입은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슬리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적용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담은 ‘프로바이오틱스 콤플렉스’가 피부 방어력을 강화하고, 지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스키투알란이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 삼성물산 패션-삼성전자, 공동 프로모션 진행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31일까지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구매 고객이 SSF샵 ‘멘스웨어 기획전’에서 남성복 구매 시 1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 SSF샵 구매 고객이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에서 멤버스십 가입 시 커피 쿠폰을 준다. 정정욱 기자